

합격기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다시 선 나를 꿈꾸며



김 계 리

- 1984년 1월 생
- 검정고시
-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I. 들어가며

기나긴 수험생활을 지나는 동안 적지 않은 합격기들을 읽으며 언젠가는 나도 합격기를 쓸 수 있을거라며 스스로를 북돋우며 의지를 다지곤 했습니다.

합격수기 청탁 전화를 받은 것은 연수원 1학기 시험기간 중이었는데, 무척이나 기뻐지만 합격기라는 것을 쓰려고 해도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고 모범이 될 것도 없는 길고 부끄럽기만한 수험기간을 합격기 안에 어떻게 녹여야 할지가 난감하여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고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시행착오를 거듭했던 제 수험생활을 반면교사 삼는다면 수험생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 조심스레 수기를 씁습니다.

II. 사법시험을 치기까지

1.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아이

청소년기, 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처음 누군가를 만나면 으레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물어봅니다.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니까요. 사람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고 대답하면 왜냐고 물어보고 무슨 문제아인 마냥 색안경을 끼고 저를 단정 지었습니다. 그런 시선들이 싫었습니다. OO학교 O학년 이라는 울타리 없이,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채 청소년기를 보내며 남들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자존심에 상처주지 않기 위해 뼈뚫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행히 일본어에 관심이 생겨 다른

아이들이 학교에서 입시준비를 하는 동안 일본어학원에 살다시피 하면서 일본어에 재미를 붙여 공부를 하였고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일본어 공부를 한 김에 한번 보고자 했던 능력시험에 꽤 좋은 성적을 내면서 통과해 나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작은 성취감을 맛보았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될지 몰랐던 제 인생이 공부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그 작은 성취감의 희열이 너무도 강렬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정고시를 치르고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마음에 어른이 되고 대학에 가서 내게도 올라타가 생기면 무언가 달라지겠지라고 막연한 판타지를 갖고 있었는데 막상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2. 사법시험의 선택

1학년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제 용돈 정도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어서 쓰고 있었고 등록금 부담을 부모님께 드리기를 싫어서 부모님께는 중국어와 영어 학원을 다닌다고 거짓말을 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아서 아르바이트 매니저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도 그 동안 일했던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작고 힘 없는 사람이었고 부조리에도 내 목소리를 내어 항변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두 시간 정도를 눈물을 흘리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해매고 올라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부하고 싶다고, 어머니께서는 다 알고 계셨다고, 공부에는 때가 있는 것인데 늘 항상 공부하라고 했는데 엉뚱

한 일을 하고 다니는 당신 딸을 보며 답답해 하셨노라고, 언젠가 스스로 깨닫고 정신 차리고 공부하겠지하고 지켜보게셨노라고 말씀하시며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마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길로 별다른 사전 정보수집도 없이 무작정 신입동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전공이 국제통상학이고 일본어를 할 줄 알아서 행정고시 국제 통상직을 준비하려 했었는데 헌법 기본강의를 들으며 알아보니 행정고시는 공무원 시험이라 만 20세가 되어야 시험에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 이었습니다. 빠른 년생이라 만 18세였던 당시 2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다가 물어 볼 테도 마땅치 않았던 때라 당시 수강 중인 강좌의 강사이셨던 이경찬 선생님께 상담을 받으니 사법시험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고 하시며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사무관도 할 수 있고 꿈꾸는 것들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사법시험으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III. 1차 시험 경험기

1. 들어가며

공부를 시작한 것은 정확히 2002년 8월 3일 부터인데 첫 번째 1차시험은 모법학원 종합반에 들어가서 준비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학원수강료를 한꺼번에 내고 강의를 듣고 싶은 만큼 듣는 것이 종합반의 전부였습니다. 비싼 수업료를 털컹 내놓고 이것저것 강의는 신청만 해 놓고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받은 강의 자료는 쌓아

두고, 소화시키지도 못한 채 공부는 테이프로 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허둥대며 본 시험에 그해 컷이 82점이었는데 78점을 받아 나름 열심히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본 2차시험에 낙방한 이후에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좌절하다가 떨어진 1차시험을 빼놓고 세 번의 1차 합격이 있었는데 세 번 모두 고득점이었고 마지막 2010년의 1차합격에는 총점 300점을 좀 넘겨 35등을 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늘 항상 1차 시험은 뭔가 절박하게 쫓기면서 공부를 하였고 1차시험을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고 나면 안심이 되었는지 정작 열심히 공부해야 할 2차시험에서는 게으름을 부리고 말았습니다. 자만심이 제 수험 생활을 길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2. 1차 시험 직 후

첫 번째 1차 시험을 치른 후 3,4,5월을 허송 세월하기 쉬운데 정말 운 좋게도 현·민·형 CASE 스테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3~4개 정도의 CASE를 풀었는데 객관식 지문으로 보는 평면적인 접근보다 사례화 되어 만나는 입체적인 방법이 공부에 재미를 붙이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CASE 문제를 풀면서 최근 CASE 문제가 증가하는 1차 시험 유형의 경향에 있어 문제를 푸는데 두려움을 덜게 해주었고, 2차 시험에 있어서도 전체 2차 수험기간에서 현·민·형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때 해 놓은 CASE 공부가 기본삼법 공부의 부담을 덜게 해주어 후사법에 좀 더 마음 편히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후 늘 항상 1차시험 이후에는 현·민·형 CASE 스테디를 꾸러 늘어지기 쉬운 3,4,5월을 비교적 알차게 보내었습니다.

3. 진모시즌

9월이 되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진모를 할지 개별적으로 문제집을 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는 늘 항상 별다른 고민 없이 진모를 선택하였습니다.

메일메일 공부해야하는 분량이 정해져 있고 풀어야하는 문제의 수가 정해져 있어서 어느 정도 강제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저에게는 적합한 수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습보다는 복습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였는데, 혼자 하지 않고 발제식 스테디를 병행하였습니다.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어떻게 몰라 틀렸는지 확인하고 자신이 맡은 분량의 문제에 대해 무엇이 틀렸는지 분석하고 비교판례 등을 찾아 정리하면서 한번, 스테디에서 발제하면서 한번 더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 때 점수에는 크게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하나를 맞았는지 보다 지문 하나하나를 맞았는지에 더 신경쓰며 꼼꼼히 복습했고, 지금 당장 몰라도 시험장에 들어갈 때 까지만 알면 된다는 생각에 날마다 점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택과목은 국제법을 하였습니다. 국제법은 기본강의를 듣고 책을 정리한 이후에는 따로 시간을 할당하여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진모시즌이 끝난 후 12월 말부터 매일 아침에 독서실로 출근하면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는 꼭 한 단

원씩 보았습니다. 하루는 본문을 보고 그 다음날은 어제 본 단원의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유동적이긴 하지만 이렇게만 해도 1,2월에 2회독이 가능하고, 강의 듣는 것과 시험적전에 보는 것을 포함하면 총 4회독이 되어 시험을 보는 데는 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4. 1. 2월 마무리 기간

기본서를 놓지 않은 채로 진모를 다시 풀었습니다.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 그 날 풀 문제를 그 날 확인하지 않고, 기본서 한 과목이 끝날 때마다 그 부분의 문제를 다시 풀었습니다. 이 때 진모 시험지를 해결지를 따로 보지 않아도 되게끔 틀린 부분을 맞는 지문으로 고쳐 놓았습니다. 이 시험지는 1차시험 직전 마지막 주에 한 번 더 풀어봄으로써 진모 시험지를 총 3회독 하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을 포스트잇에 정리하여 나중에 연습장에 순서대로 붙여 한 권의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시험 막판까지 헛갈리는 부분을 정리해 놓은 저만의 서브노트인 지라 어느 막판정리서 보다 좋았고,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들고 다니며 보고 시험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5. 기출문제와 최신판례의 중요성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출문제를 따로 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기출문제만 보기에는 적은 양이라고 느껴지고 진모 지문들 사이에 기출지문이 반영되어 있어 진모만 풀어

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모시준이 끝난 후 직전 3개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다만 매년 내용 변동이 상당한 헌법은 따로 기출문제를 풀지는 않았는데, 통치구조, 헌법재판소, 헌정사 부분만 풀었습니다.

최신판례는 3년 치를 따로 보았습니다. 최신판례도 선택과목과 마찬가지로 시험 직전에 부담되지 않도록 매일 1시간 씩 시간을 내어 꾸준히 공부하였습니다. 최소한 3번은 보았고, 헛갈리거나 중요한 판례에는 인덱스를 붙여서 시험장에서 빠른 시간에 그 부분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과목별 비중

저 같은 경우는 형법과 헌법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고, 비교적 민법이 취약하였기 때문에 민법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형법과 헌법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지금 아는 것은 나중에 봐도 안다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취약한 부분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IV. 2차 시험 도전기

1. 첫 번째와 두 번째

제가 1차를 처음 합격했을 때만 해도 제 또래의 나이에 공부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힘들게 1차를 합격하고 나서도 1차를 합격했다는 기쁨에 취해 2차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미처 알지 못하고 자만심에 빠

져 그 기회들을 날려버렸습니다. 오히려 어린나이에 일찍 1차 시험을 합격한 것이 제 수험기간을 길게 하는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2차 시험의 방대한 양에 비추어보아 이해가 선행되고 커다란 숲을 보고 흐름을 이해했어야 했는데, 나무 한 그루에 집착하여 1차 때와 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하다보니 공부하는 시간이 턱 없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었는데 책 탓을 해서 기본서를 여러 번 바꾸는 우를 범하였고, 학원 강사의 수업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꾸기를 거듭하다 정작 3순환이 되어서는 정리된 책이 없어 매일같이 진도에 허덕이다 모의고사 보기가 겁나서 빼먹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처음 다가온 2차 시험의 기회를 과락은 없지만 큰 총점차이로 허무하게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2. 세번째와 네번째

다시 1차를 본 뒤, 1차의 합격을 확신하고, 바로 2차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재시기간 동안의 공부가 뒷받침되어있지 않았고, 기본서를 최신판으로 바꿔야하는지, 그나마 조금이라도 정리가 되어있는 구판을 봐도 되는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웬지 새 마음으로 새 책에 줄긋고 정리하면 공부가 될 거라는 생각에 책 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불찰이었습니다. 결국에 시험 전까지 책정리하다가 시일이 촉박해지자 정리하던 것을 그만두고 얇은 단문집 같은 것들로 마무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공부하고

서 합격을 바라는 것은 시험 앞에 오만하기 짝이 없는 마음가짐이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일말의 기대감에 1순환 시기를 어영부영 보내었습니다. 결과는 낙방. 점수를 보니 생각보다 점수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날려버린 1순환을 안타까워하며 2순환 때부터 1순환 강의를 들으며 공부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형식상 사시이지만 실질상 재시. 학교도 채 졸업하지 못한 채 나이와 시험경력만 많아지게 되어 공부가 조금하고 긴장감이 더해졌습니다. 이때에도 시행착오는 있었는데 남들이 다보는 좋은 사례집이라고 저도 불까하여 두꺼운 사례집을 건드렸다가 사례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 주소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책속에서 길을 잃고 허우적대는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3순환 때는 기본서와 모의고사만 보았습니다. 이 시기에 사례집으로 대체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꽤나 있었는데 눈에 익은 기본서를 버리고 과감히 사례집으로 바꿀 엄두가 나지 않아 그냥 기본서로 밀고나갔습니다. 4시 때 3순환 이후의 생활은 정말이지 혹독한 시기였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이 길을 선택하지 않으리라. 어께가 내려 앉을 것 같이 뭉쳐오고 압박감에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다가도 제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하고 작은지, 그 동안의 수험기간이 너무나 한스러워서 하루에도 몇 번씩 독서실 열람실에서 소리쳐서 눈물을 쏟아내며 막판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나흘간의 전쟁같은 시험을 치루고 행정법만 잘 막아준다면 합격 할 수 있겠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과락이야 나올까 하는 생각에 은근 합격의 기대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미워두었던 학교에 복학했는데 발표 날은 중간고사 기간이었습니다. 시험을 오전에 하나 치르고 컴퓨터실에 뛰어와서 명단을 확인을 했는데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몇 번이고 새로고침을 해보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에 있을 시험은 경제학이었는데 머리가 하얗게 되고 눈물이 줄줄 쏟아져서 아무것도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결국 시험지에 교수님께 정중히 저의 사정을 편지로 쓰고 시험장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에 토의 시험도 준비해 놓지 않았었고, 부모님께도 죄송했습니다. 수험기간이 힘이 드는 건 시험자체가 어렵고 스스로가 그것을 이겨내기가 버거운 점도 있지만 나 하나로 인해 가족들이 지쳐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 저에게 어머니께서 네가 열심히 했고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 정도라면 그걸로 되었다고 울 것 없다고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 지난 수험기간은 제 자신이 가장 잘 알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러웠습니다. 다음날 점수를 확인해보니 컷을 조금 넘기고 행정법이 과락이나 있었습니다. 차라리 컷에서 확 떨어졌다면 더 이상 해도 안될거라고 단념할 수 있었을텐데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것이 그대로 포기하고 놓아 버리기에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도전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간고사 이후 학교 일정이 죄다 프로젝트 발표수업이라 1차공부에 매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말고사를 정신없이 치르고 나니 남은기간은 45일 남짓. 설마 일차 시험에 떨어질까 라는 알팍한 자신감이 화를 불렀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처음 1차를 보았을 때보다 점수가 더 낮았습니다.

3. 해결이와 다섯 번째 도전

2009년. 이 시기가 아마도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오랜 수험기간으로 사회에서 제 자리는 없었고, 처참한 점수로 1차마저 낙방한 탓에 자존감과 일말의 자신감마저 상실한 채 방황을 했으니까요. 내가 이제껏 준비한 내 인생의 목표가 법조인이고,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법 공부라고 생각하였는데 쉽사리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께 지원을 받고만 있기가 미안하고 죄스러웠습니다. 2차생 모의고사 답안지 채점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돈을 받으며 채점자로서 일하는 거였지만 오히려 답안지를 채점하며 제가 많이 배워 나갔습니다. 수험생으로써 답안지를 쓰는 것이 아닌 채점자로 답안지를 보다보니 그동안의 제 답안지의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요구하는 답이 아닌 막연한 일반론의 나열, 사례의 사안포섭의 부실, 판례의 비중, 배경과 연결되지 않는 단어와 문구들의 적시, 답안지의 형식 등등 그동안 제가 모르고 있었던 제 답안지의 단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써와서 습관이

되었던 것이라 쉽사리 고치기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고치려 노력한 것만으로도 답안지의 인상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해결이로 일차준비를 하고 있던 가을과 겨울 사이 아버지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셨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니다. 당신 딸 시집가면 사위랑 바둑한판 두시는 것이 소원이라는 분이었는데, 아직 인간구실도 하기 전에, 스스로 서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지 못한 채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아득하고 막막했습니다. 긴 수험기간 동안 변변히 자식 노릇 한번 못했는데 아직 해드리고 싶은게 너무 많은데 그렇게 가신게 믿기지 않았습니니다. 12월 한 달 정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독서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시험이 막판인지라 어디 가지도 못한 채 독서실 자리에 앉아 숨죽여 통곡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낫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곧 1차시험이었으니까요.

정신을 차리고 12월 말부터 1차시험까지, 그리고 2010년 다섯 번째 시험 막판 두 달 정도는 하루에 14시간정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밤에 늦게 자고, 아침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하루 종일 피곤하고 졸려서 굳이 아침 일찍 일어나려하지 않았습니니다. 이르면 열시 늦으면 열시반 정도까지 독서실 자리에 착석하고, 대신 밥 먹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배가 불러 포만감이 들면 졸려서 공부를 못하고 점심 먹으러 나가는 시간이 아까워 아침에 들어갈 때 물과 열람실 안에서 먹어도 소리나지 않는 카스테라 같은 것을 포장을 벗겨 들어가 독서실 자리에

서 간단히 점심을 해결하였습니다.

2010년 마지막 1차 시험을 무사히 치렀습니니다. 역시 3,4,5월은 현·민·형 CASE 스터디를 하였고, 이후 현·민·형은 별도의 기간을 할애하지 않고 후사법에만 매달렸습니다. 한 과목을 모의고사 진도에 맞춰 공부하고 난 뒤, 다음과목을 공부할 때 하루에 두 시간 정도 그 전에 공부했던 과목의 풀해보지 않은 다른 학원 모의고사 문제를 목차를 잡아보고 관례를 써보며 틀렸거나 제대로 외우고 있지 못한 부분은 해당 교과서 부분을 꼭 다시 찾아가 읽고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시간 정도 투자한 것이 기억이 휘발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막아주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흘,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아쉬운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니다. 신기하게도 시험 직전에 보았던 눈점들이 곳곳에 눈에 보이긴 했지만, 역시나 전혀 감 잡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시험장을 한번 둘러보니 내가 모르는 문제들은 남들도 모르는 것 같아 당황하지 않고 분량을 채우려고 노력했고, 되도록 조문을 뒤져 조문으로라도 기본기를 보여주려 애를 썼습니니다.

그리고 발표 날,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우셨습니다. 합격을 하게 되면 평평 울 것 같았는데, 그동안 소리죽여 못내올었던 눈물까지 다 쏟아내며 울 것 같았는데 막상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니다. 거기 이름 석자 올리기까지 왜 그렇게 길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길고 긴 터널을 지나온 듯 합

니다. 하루종일 축하전화를 받으면서도 사실 실감이 나질 않았습시다. 사실 합격기를 쓰고있는 지금도 합격을 한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V. 마치며

합격자 발표가 있고나서 얼마되지 않아 아버지의 첫 제사가 있었습니다. 서툰 솜씨지만 아버지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제가 직접 차려보았습니다. 단출하게 차린 아버지 제사상 위에 합격증을 고이 놓아드렸습니다. 아아... 일년만 빨리 합격했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 서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죄스러움에 눈물이 쏟아집니다.

스무 살 옛된 대학교 신입생이 긴 시간의 터널을 지나 스물여덟 아가씨가 되어서야 합격이라는 작은 열매 하나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지금 합격기를 읽고 계시는 분들. 잠시 머리를 식히셨다면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으시고 다가올 내일, 흘러간 오늘을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제 스스로를 놓지 않도록 의지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아버지. 감사합

니다. 조금 많이 늦어서 너무 미안해요. 평안하게 쉬셨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는 기간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셨던 고시반 정준우 교수님, 공부하는 방법이나 수험에 임하는 자세를 몸소 보여주셔서 저의 수험기간의 바로미터가 되어 주신 재진 언니, 아낌없이 조언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이경찬 선생님, 공부한답시고 늘 항상 그다지 좋은 친구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힘든 순간순간 옆에 있어준 교린이, 함께 싸이클을 맞추고 함께 공부한 석현오빠, 유세오빠(올해 좋은 결과있을 거야!! 믿고있어!!), 이런저런 수다 같이 떨며 스트레스 함께 풀었던 수진언니, 유진언니, 엄연오빠, 현용오빠, 힘든 시기 같이 아파해주고 보다듬어 주셨던 학수씨, 종귀오빠, 회정언니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험기간 동안 걱정해주시고 독려해 주셨던 다른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니. 제게 합격이 주어지고 또 미래에 제 앞의 가는 길에 빛이 비춘다면 그것은 어머니 당신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의 눈물을 딛고선 자입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